



염색을 하면 시력이 떨어진다?

머리카락을 노랗고 빨강게 물들이는 게 유행이다. 과거엔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들이 염색을 했으나 컬러 시대가 됐기 때문인지 요즘에는 멋으로 염색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었다. 부모들은 염색을 하면 시력이 나빠진다고 하며 한사코 말린다. 과연 염색을 하면 시력이 떨어질까?

결론적으로 말해 염색을 한다고 해서 시력이 저하되지는 않는다. 염색을 하면 눈이 침침해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염색약과 시력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나 염색약이 눈에 들어가면 문제는 달라진다. 염색약이 실수로 눈에 들어가게 되면 각막에 상처를 입힐 수 있고, 두통·시력 저하·결막염 등을 야기할 수 있다. 각막이 심하게 손상되면 시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염색약이 눈에 들어가면 즉시 흐르는 물로 눈을 씻어내야 하며, 통증이 없어도 각막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안과를 찾아야 한다.

TV를 가까이서 보면 눈이 나빠진다?

TV를 가까이서 보면 눈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TV를 가까이 보기 때문에 눈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눈이 나쁘기 때문에 TV를 가까이서 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TV를 가까이서 보는 아이의 시력검사를 해 보면 이미 근시인 경우가 많다.

아이의 시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전적인 문제다. 수정체와 상이 맺히는 망막 사이의 거리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데, 자라는 과정에서 수정체와 망막까지의 거리가 길거나 짧기 때문에 근시나 원시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TV를 가까이서 본다고 눈이 더 나빠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이들이 TV를 가까이서 보면 야단을 치지 말고 안과 의사에게 데려가 시력검사를 받아 보도록 해야 한다.